

# 하상주보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2024년 8월 4일  
제2012호

주임 신부: 김태진 베네딕토

보좌신부: 이태섭 요한사도

사도 회장: 강세원 바오로

연령 회장: 홍익훈 요셉 (703 966 8206)

사무실: 703 968 3010

팩스: 703 968 3013

주소: 4712 Rippling Pond Drive, Fairfax, VA 220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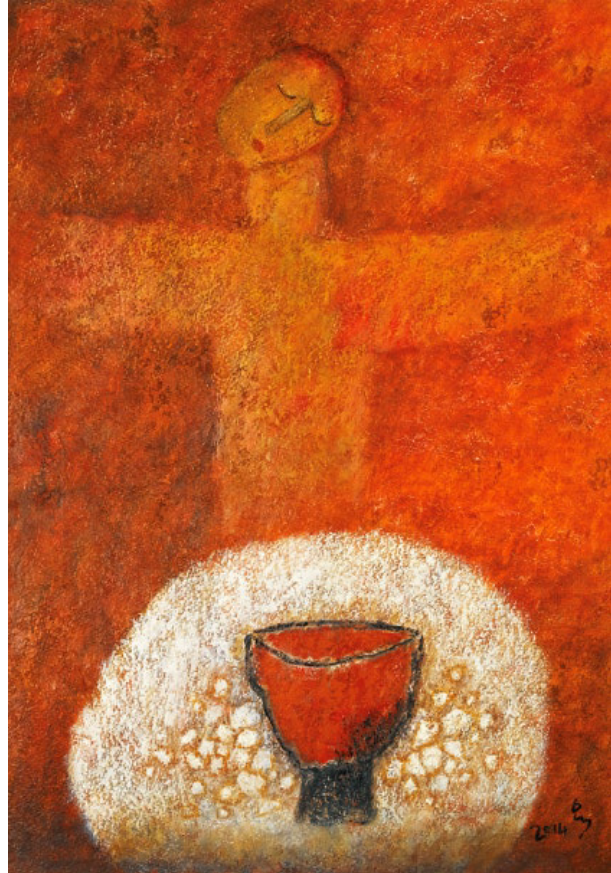
이메일: sthasang@gmail.com

기도로 힘을 얻어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리라.”(묵시 21,5)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요한 6,35)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 김옥순 수녀 作

## 연중 제18주일 (나해)

**제 1 독 서** 탈출 16,2-4.12-15 | 내가 하늘에서 너희에게 양식을 비처럼 내려 주리라.

**화 답 송 시편 78(77)** | ◎ 주님은 하늘의 양식을 주셨네.

**제 2 독 서** 에페 4,17.20-24 | 여러분은 하느님의 모습에 따라 창조된 새 인간을 입어야 합니다.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복 음** 요한 6,24-35 |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때에 <sup>24</sup> 군중은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서,  
배들에 나누어 타고 예수님을 찾아 카파르나움으로 갔다.

<sup>25</sup> 그들은 호수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찾아내고,  
“라빠,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sup>26</sup>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sup>27</sup>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그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람의 아들을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sup>28</sup> 그들이 “하느님의 일을 하려면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sup>29</sup>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느님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는 것이다.”

<sup>30</sup> 그들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무슨 표징을 일으키시어 저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시렵니까?

<sup>31</sup> ‘그분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에게 빵을 내리시어 먹게 하셨다.’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sup>32</sup>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 준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참된 빵을 내려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sup>33</sup> 하느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이다.”

<sup>34</sup> 그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그 빵을 늘 저희에게 주십시오.” 하자,

<sup>35</sup>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 복음 묵상

이집트의 고기 냄비는 ‘옛 인간’의 생활 방식입니다. 그런데 옛 인간의 삶은 충만하지 않습니다. 광야 길에 지친 이스라엘이 이미 잊은 듯하지만, 이집트는 설령 먹을 것이 있었다 하여도 종살이하던 집이었습니 다. 그 땅에서 이스라엘이 억눌려 부르짖었기에 하느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는데, 이스라엘은 그 해방을 잊고 음식이 주는 쾌락을 찾습니 다.

제2독서에서 “사람을 속이는 욕망”(에페 4,22)이라는 표현이 특별히 눈에 들어옵니다. 욕망, 어떤 것을 좋다고 여겨 그것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사람을 속인다고 말하는 것은 그 대상이 참으로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호수 건너편까지 애써 예수님을 따라간 이들은 무엇을 찾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께 빵을 청하지만, 막상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바로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분을 떠나갈 것입니다. 그들이 찾고 있는 것이 옛 인간에게 속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음식을 구하려고 수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찾고 있는 것을 더 이상 찾지 말라고, 그 빵이 생명을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실 때 그들은 옛 인간을 벗어 버리지 못합니다. 마치 이집트의 음식을 그리워하여 종살이에서 해방되기를 바라지 않는 이들처럼, 내 손으로 붙잡을 수 있어 보이는 것을 놓치지 않으려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더 큰 선물을 받지 못합니다.

이들은 배까지 마련하여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찾고 있는 것은 옛 인간을 만족시키는 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안소근 실비아 수녀)

##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 묵상

# “희망을 전하는 복음의 등불이 되십시오.”

-프란치스코 교황-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은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체험하도록 부름 받았음을 떠올려 줍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 빛을 받은 우리가 작은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복음의 자그마한 등불처럼 모든 곳을 밝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변모는 “부활을 예고한 발현”이자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의 선물”이며 “지상에서 드러난 하늘나라의 모습”이다.

### 빛줄기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산에 오르셨는데,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옷은 빛처럼 하얗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십자가 수난과 죽음의 결과인 영광스러운 부활을 미리 보여주셨다. 이 빛은 “희망의 빛이자 어둠을 거쳐 나가기 위한 빛”이다. 교황은 2021년 2월 28일 주일 삼종기도에서 어둠이 마지막 말을 갖고 있지 않다면, 따라서 우리는 삶의 “거대한 수수께끼” 앞에서 그리스도께 눈을 돌려 그분 안에 머물라는 부르심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관점과 빛이 필요합니다. 생명의 신비를 깊이 비추주며, 우리의 계획이나 세상의 기준을 넘어서게끔 도와주도록 말입니다. 우리 또한 산으로 올라 부활하신 주님의 아름다움을 관상하도록 부름 받았습시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한줄기의 빛을 비추시고, 부활의 승리에서 시작해 역사를 해석하게끔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 하느님을 찾기 위한 기도

“기도를 통해서 산으로 올라갑시다. 항상 주님을 찾으면서 (...) 침묵의 기도, 마음의 기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매일 조금씩이라도 묵상 중에 잠시 내적 시선을 그분께로 향하고 그분의 빛이 우리에게 스며들어 우리의 삶을 비추도록 내어 맡깁시다.”

### 그리스도인의 사명

믿는 이들의 사명은 빛을 충만히 받고 산에서 내려 왔을 때 실현된다. 이 사명은 기도하는 이의 빛나는 얼굴 안에서, 다른 이들의 생명을 비출 수 있는 마음 안에 타오르는 불꽃을 통해 진리와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사람들의 마음에 작은 빛을 점화시켜야 합니다.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복음의 작은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8월 6일 (화)

##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얗게 되었다. (마태 17, 1-2)



<변모>, 두치오 디 부오닌세나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은 공관 복음이 공통으로 전하는 말씀에 따른 것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신 일을 기리는 날이다. 이 축일은 ‘성 십자가 현양 축일’(9월 14일)에서 사십 일 앞서 지낸다. 교회의 전통에 따라,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사십 일 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이해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 수난과 죽음의 결과인 영광스러운 부활을 미리 보여 주시고자 거룩한 변모의 표징을 드러내셨다. 1457년 갈리스토 3세 교황이 보편 전례력에 이 축일을 받아들였다.

## 1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

- 성모 승천 대축일(8월 15일)은 의무 대축일입니다. 성모 마리아께서 지상 생애를 마친 다음 육신과 영혼이 함께 천상 영광으로 하늘로 들어올려진 것을 기념하는 대축일 미사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

8월 15일(목) 오후 7:30

(새벽 미사는 없습니다.)

## 2 구역 임원 교육

- 일시: 8월 4일(일) 오전 11:30 (B-1,2)

## 3 소공동체 모임

- 매월 두 번째 토요일은 소공동체 모임의 날입니다. 공동체의 일원으로 함께 모여 친교와 사랑 안에 믿음을 키워가는 공동체이길 청해봅니다.

## 4 대부모 대자녀 프로그램

- 일시: 8월 4일(일) 오전 11:15 (A-1)
- 예비자들과 함께 친교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문의 바랍니다.
- 문의: 이성근 에레미아 (703) 627-1932

## 5 첫 목요 기도회

- 일시: 8월 6일(화) 오후 7:30 (성당)
- 강사: 박호성 요셉 (앵커리지 한인 성당 주임)
- 8월 첫 목요 기도회는 화요일로 변경되어 실시됩니다.
- 묵주기도와 성체 현시, 찬미와 미사로 진행되는 이번 기도회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6 단체장 회의

- 일시: 8월 11일(일) 오전 11:30 (A-1,2)

## 7 꼬미시움 월례 회의

- 일시: 8월 11일(일) 오전 11:30 (하상관 #4,5)

## 8 주일학교 CCD Summer Camp

- 일시: 8월 9일(금) 오후 3시 - 8시, 8월 10일(토) 오전 10시 - 오후 6시
- 장소: 성당
- 대상: 현재 K(유치부)부터 7학년까지
- 등록: 하상관 입구, 교무실
- 문의: 김 세바스티아 (703) 626-1370
- 부모님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9 2024 - 2025년 CCD 조기 등록

- 대상: 유치부(K) - 8th grade
- Early Bird Discount: 한 자녀 \$90 / 두 자녀 \$160 세 자녀 이상 \$180
- 등록: Google Form / 접수양식(하상관 교무실), 8월 4일까지 (8월 5일 - 9월 15일은 할인 적용 안됨)
- 9월 15일(일) 이후에는 등록을 받지 않습니다.
- 문의: 임형준 이레네오 (703) 624-8196

## 10 2024 - 2025년 CYO 조기 등록

- 대상: 9학년 - 12학년
- Early Bird Discount: 한 자녀 \$90 / 두 자녀 \$160 세 자녀 이상 \$180
- 등록 문의: 구아름 데레사 (703) 599-8869

## 11 다민족 공동체 미사

- 알링턴 교구 버짓지 주교님 미사 집전
- 일시: 8월 16일(금) 오후 6:30
- 장소: Saint Mary of Sorrows Catholic Church
- 교구에서 다민족 공동체들에 대한 관심으로 해마다 열리는 미사입니다. 알링턴 교구 소속의 한인 본당이라 칭하며 행사에 함께 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교구에 대한 소속감을 신앙으로 드러내는 모습이길 칭하며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미사 후 다민족 음식, 공연이 있습니다. 본당 저녁 미사는 없습니다.
- 다민족 공동체 미사를 위한 성가대 협조: 성가대원들과 성가에 관심있는 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성가 연습: 8월 7일(수), 8월 14일(수) 오후 7시 (Saint Mary of Sorrows Catholic Church)

공지

## 주일미사 참례에 대한 의무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신자들은 주일미사 참례 의무가 있습니다. 주일미사 참례는 어느 성당이든, 어떤 미사는 상관없습니다. 주일미사 참례 의무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고해성사’를 보셔야 합니다.

## FIND A MASS near me

휴가 중에도 주일을 지키는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행지에서 가장 가까운 성당과 미사 시간을 찾을 수 있습니다

[www.masstimes.org](http://www.masstimes.org)

## 2024 회장단

본당 공동체를 위해 새롭게 봉사해 주실 회장단이 구성되었습니다. 회장단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         |          |
|---------|----------|
| 총 회 장   | 안민철 미카엘  |
| 운영 부회장  | 이성근 에레미아 |
| 총 무 부 장 | 남미경 헬레나  |
| 전례 부회장  | 이규철 베드로  |
| 구역 부회장  | 배성훈 디오테오 |
| 단체 부회장  | 김창겸 안드레아 |
| 여성 부회장  | 서민수 안젤라  |
| 청소년 부회장 | 황정현 요한   |

## 교중미사 예불봉헌

|            |         |
|------------|---------|
| 08/04 이번 주 | 센터빌 3구역 |
| 08/11 다음 주 | 센터빌 4구역 |

##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4년 7월 28일 (연중 제17주일)

|           |              |
|-----------|--------------|
| 봉헌금       | \$ 7,699.16  |
| 교무금       | \$ 4,840.00  |
| 교무금(신용카드) | \$ 2,350.00  |
| 감사 헌금     | \$ 1,090.00  |
| 온라인 봉헌    | \$ 1,570.00  |
| 합계        | \$ 17,549.16 |

버지니아 성 정 바오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Cox Ch. 30, 830,  
1030  
Fios Ch. 30

2024년 8월 8일(목) 오후 5:00 - 6:00  
2024년 8월 9일(금) 저녁 8:00 - 9:00  
2024년 8월 11일(일) 오전 6:00 - 7:00

- 주일 강론
- 교회미술 2천년 : [제 6강]  
중세 고딕성당 읽기 (2)



## 미사 시간 안내(Mass Schedule)

|              |                                                                                                                                 |          |  |
|--------------|---------------------------------------------------------------------------------------------------------------------------------|----------|--|
| 주일미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8:00 AM</li> <li>10:00 AM(교중미사)</li> <li>2:00 PM(학생미사)</li> <li>5:00 PM(청년미사)</li> </ul> |          |  |
| 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 | 7:30 PM                                                                                                                         |          |  |
| 월, 목, 토      | 화, 금                                                                                                                            | 수        |  |
| 6:00 AM      | 7:30 PM                                                                                                                         | 11:00 AM |  |